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금강산 남·북종교인 모임 축하연설

우리 남북 종교인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민족영산, 금강산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애쓰신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이자 조선가톨릭교협회 위원장이신 장재언 위원장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님, 조선불교도연맹 지성스님,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종교의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이후 다시 만나는 이 자리는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고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 금강산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 빛나는 봄의 금강산, 녹음으로 우거진 여름의 봉래산, 바위마저도 붉게 물든다는 가을의 풍악산, 그리고 새봄을 잉태한 맑고 깨끗한 겨울의 개골산. 백두산이 민족의 정기를 의미하고 한라산이 민족의 성품을 뜻한다면,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굳건한 꿈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민족은 금강산을 ‘소풍 나온 신선들이 차마 떠나지 못해서 그대로 머물러 바위가 된 곳,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곳’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금강산은 분단 이후 제일 먼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분단을 뛰어넘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수많은 노력이 이곳 금강산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금강산에서 만큼은 민족의 공존과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종교인이 그러한 변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종과 사상, 심지어 종교적 이유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세기에 일어난 온 지구적 격동기에 만들어진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이 두 개로 갈라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오래 전에 이와 같은 불행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불행을 이겨내고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종교인에 의해 시작되고 온 겨레의

힘이 결집된 3.1운동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3.1 독립선언이 말하는 민족의 자존과 독립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향한 의지는 바로 여러 종교가 공동으로 품고 있는 평화에 대한 열망이었으며, 민족과 역사를 위한 뜨거운 마음의 합일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아직도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존경하는 북과 남, 남과 북의 종교인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거대하고 급속도로 구축된 물질문명, 그리고 여기서 파생한 이기심은 평화보다는 분쟁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끝에는 파괴와 공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평화를 소중히 가꾸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공멸을 막아서기 위해 한 몸 던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은 한 알의 씨앗과 같습니다. 싹을 틔우는 것도, 줄기를 밀어 올려 열매를 맺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연은 혹독해서 맹렬한 추위와 거친 폭풍, 가뭄과 홍수를 이겨낸 씨앗만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듯이, 통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향해 진정 통일을 꿈꾸고 열망한다면 더 많은 인내와 수고의 땀을 흘릴 것을 요청합니다. 뜻하지 않게 다시 만난 한파에도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겨울 금강산의 지혜를 우리도 배우시다. 봄여름가을 한껏 아름다움을 뽐내다가도 자성의 계절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재보다 더 푸르고 밝은 내일을 꿈꾸는 금강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분단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우리는, 가깝지만 너무나 먼 이곳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길 위로 반드시 통일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이 더욱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11월 9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승